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과정에 관한 연구*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 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총 39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를 45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장애에 대해 모름', '너무 아파 힘들', 심리적 고통으로 '마음 안으로 숨어들' 인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집에만 있어 무기력해지고', 장애인정이 어려워 '스스로 장벽을 쌓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장벽'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gender), 장애획득시기, 중도장애 여부 등에 따라 레질리언스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도장애인이 레질리언스를 갖게 되는 중심현상은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심현상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중재조건으로는 외적으로 가족, 친구, 주변사람, 제도의 지원을 통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내적으로 종교의 힘과 모델링을 통하여 '변화의 의지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전략은 '노력을 배가하고', '직접 찾아보며', '능동적으로 실행하기'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중도장애인들은 장애와 사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 과정의 핵심범주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나의 삶 선택하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레질리언스에서 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한 주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정분석에서는 '고통', '낮섬', '성찰', '일상' 단계로 확인되었으며, 이 단계들은 단선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인 순환과정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유형은 존재성찰형, 진로개척형, 은근노력형, 적극실행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개인, 가족 및 친구, 사회 및 제도 차원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상황모형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실천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 이해를 구축하면서 그 과정 및 유형, 상황모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중도장애인 연구에 관한 이론구축 및 정책적, 임상적 개입에 그 함의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장애, 레질리언스, 근거이론,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B00273).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복지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 장애범주 확대 뿐 아니라, WHO의 ICF를 통한 장애 정의의 변화, 사회적 모델 및 자립생활패러다임, 생애주기접근 및 강점 관점의 강조 등이 그것이다(김미옥, 2003). 이러한 변화는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을 소비자나 권리의 주체로서 이 동시켰고, 장애를 문제로 보던 의료/병리적 관점으로부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이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장애라는 고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혹은 긍정적인 적응(positive adaptation)을 하는 일단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장애를 문제 혹은 병리적 관점으로 조 명하고자 하는 의료·재활모델에서 벗어나, 장애라는 고위험 상황에서도 이들을 다시 서게 하는 요인 을 발견하고자 하는 강점중심접근(strength-centered approach) 중 하나이다. 이 접근은 무엇이 이들 로 하여금 장애라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강점중심접근의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레질리언스(resilience)¹⁾이다. 레질리언스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efficacy)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Luthar, 1991). 따라서 탄력적인(resilient) 장애인은 장애라는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유능감으로 이에 대처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추고 긍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개념의 연구가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서 시작되어, 국내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인분야는 가족 레 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김미옥, 2001). 그러나 정작 장애인 개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생의 한 시점에서 장애라는 급작스러운 경험을 하는 중도장애인의 경우, 그 어떤 상황 보다도 고위험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장애를 딛고 다시 사회에 적절히 복귀하는 장애인이라면,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Walsh, 1998). 만약, 무엇이 이들을 탄력적으로 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이는 향후 정책적, 임상적,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을 내부자관점으로 이해하여, 초기 장애직면에서부 터 다시 일어서는 레질리언스 과정을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청 소년기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보호 및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거이론이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성인기 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에 대한 이론 구축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중도장애인에 관한 국내 최초의 질적연구 접근이고, 중도장애인에 관한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나 정책 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적, 임상적으로도 큰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1)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탄력성, 적응유연성, 회복력, 극복력, 복원력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고자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resilient는 필요시 '탄력적인'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으로 기대한다.

2. 문헌고찰

레질리언스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아동발달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조기개입과 예방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부모 혹은 역기능적인 가족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왜 어떤 아동은 이러한 혼란과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존과정(survival process)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고위험에 직면한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탄력적인 개인은 위험 및 장애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게 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일단의 선행연구(Murphy and Moriarty, 1976; Luthar and Zigler, 1991; Masten, Best, and Garmezy, 1990; Rutter, 1985, 1987; Simeonsson, 1995)를 통하여 레질리언스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레질리언스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상처받지 않음(invulnerabl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레질리언스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Luthar, 1991). Garmezy(1993)는 높은 위험상태에 처해 있거나 만성적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경을 겪음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편, Walsh(1998)는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한다. 즉, 레질리언스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레질리언스는 개인의 경험을 폭넓게 조명하되, 일반적으로 역경에 직면하여 긍정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레질리언스는 역경을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호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레질리언스는 단지 생존에 대한 개념이 아닌 스트레스와 경험으로부터 한 단계 나아가 성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레질리언스는 하나의 결과 혹은 과정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선, 결과로서 레질리언스의 효과를 살펴본 양적 연구들은 레질리언스가 장애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Alriksson-Schmidt, J. Wallander, F. Biasini, 2006), 암환자의 삶의 질과 적응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며(Strauss, Brix, Fisher, Leppert, Fuller, Roehrig, Schleussner and Wendt, 2007),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미옥, 2005). 하나의 과정으로 레질리언스를 보고자 한 연구들은 고위험 상황에서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청소년의 레질리언스를 증진시키는 보호요인

은 사회적 환경, 가족기능, 동료의 격려 등이었다(Alriksson-Schmidt 외, 2006). 병리적 환자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내구력과 사회적 지지가 레질리언스의 중요한 요인이었고(Preece, 2005), 학대받은 아동에 관한 연구는 지지적 타인이 레질리언스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DuMont, Widom, Czaja, 2007).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의 관계에서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구성하여 주요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변인간 영향력을 규명한다. 그 결과로서, 변인들의 상호영향력에 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상당히 밝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상을 달리할 뿐 변인과 그 결과는 유사하여 선행연구들 간 차별성이 약해지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결과로서의 레질리언스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 레질리언스를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소수지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질적연구들은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어 레질리언스가 증진되는 역동적인 과정들을 규명하고 있다.

Richie, Ferguson Gomez(2003)는 근거이론방법으로 사지절단환자의 생존과 관련된 레질리언스를 연구하여, 신념과 의료적 처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 정책적 구성을 레질리언스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Kralik, Loon와 Visentin(2006)은 만성질환자들이 삶에 적응하기 위한 전환기적인 학습과정에서 레질리언스를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하였다. 레질리언스는 중재, 재구조화기,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기 등을 통해 자아가치를 증진시키고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 적응하는 능력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 김혜성(1997)은 사지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극복력이라는 개념 개발을 연구하면서 그 속성을 심리적,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극복력을 하나의 과정으로 전제하면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전략으로서 가족의 지지, 동료 및 의료인의 지지, 사회적 지지, 자신의 노력, 소속감, 자신감, 책임감, 종교와 자연의 지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지연(2006)은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응유연성은 다양한 내·외적 자원을 기반으로 부정적 경로로의 영향을 완화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지각, 가족원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비합리적 신념 수정, 미래지향적 신념 등이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홍성경(2005)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극복력 개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극복력의 발현요인은 삶의 위협이 되거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기나 역경이며, 극복력의 속성은 자기가치 존중감, 자기 효능감, 자기신뢰, 독립성,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마음, 강한 의지, 책임감의 심리사회 특성과 관계지향성, 친밀감, 사회적 관심의 관계 특성, 신앙, 긍정적 의미추구, 삶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의 신념 특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극복력의 결과는 역경의 수용,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감사의 생활과 나눔의 기쁨이며 긍정적 가족지지는 극복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여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국내에서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질적 접근의 연구도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레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 과정을 질적연구 중에서도 근거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토착화된 지식 생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청소년기 이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성인기 장애인이다. 본 연구자가 지체장애로 장애영역을 한정된 것은 중도장애라도 장애영역에 따른 특성이 상이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동일한 장애획득이라 하여도 그 수용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여, 청소년기에 장애를 갖되 현재 성인기에 있는 지적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포화 시점까지 인터뷰하여 최종 참여자 수는 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레질리언스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성인기의 장애인을 인터뷰 하므로,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 중 6명은 취업 중이었고, 2명은 취업예정자였다. 다른 하나는 현장 전문가 혹은 동료장애인,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탄력적인 것으로 추천받거나 판단되는 대상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우선 중도장애인 접촉이 용이한 00복지공단 담당자와 연계하여 적합한 대상을 20여명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명단을 기초로 장애정도가 너무 경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전점검 및 개별연락을 취한 결과 총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00축진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10여명을 추천받았고,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총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인터뷰 필요성이 제기되어, 00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총 3명을 인터뷰하였다. 나머지 두명은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 보도된 사람들 중 방송국 PD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방송내용을 보고 본 연구자가 판단하여 2명을 제외, 연구에 참여시켰다. 총 10명을 인터뷰하였으나, 이 중 2명은 선천적 장애인으로 최종 결과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²⁾. 매 인터뷰마다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중도장애인 8명에서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 과정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며, 구체적으로 장애인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가, 장애를 갖고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인가 등의 반구조화된 연구질문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들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순서없이 연구자가 유연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중도장애인 중심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선천적 장애인과 다른 경험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어 선천적 장애인 2명을 추가로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 같은 영역이 있으나, 장애획득시기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천적 장애인 2명의 인터뷰 내용은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이해,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였다. 추후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심층적인 비교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2시간에서 3시간정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진행 등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실시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 연구메모 등을 사용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식적이고 순서적이라기보다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한 환경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장사무실, 직장주변카페, 집, 방송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추가면접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공지해 두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trauss and Corbin(1998)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건 대 사건 비교와 은유와 비유를 통한 이론적 비교를 통해 사고를 촉진하고 이론적 표본을 추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의 범주화를 위한 개방코딩과 범주 및 과정 분석, 핵심범주와 레질리언스 유형 및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모든 연구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책임성과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Lincoln and Guba, 1985). 첫째, 중립성의 고수이다. 질적연구에서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가능한 해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편견 및 주제와 관련된 개인 경험 등을 기록하고 분석에 반영하면서 자기성찰과 민감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장애인전문가와 의견교환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활발한 피드백을 교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일관성(consistency)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에 따른 정확한 과정, 특히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자에게 연구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최종 분석결과에 반영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trust-worthy)는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중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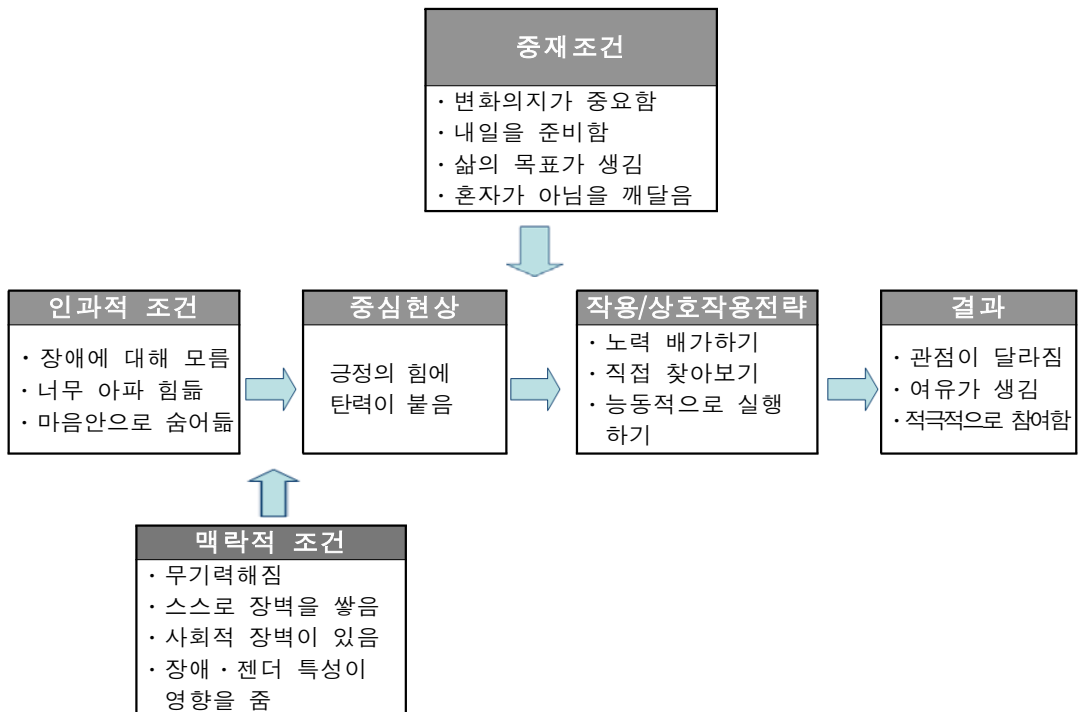
부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다시 읽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최종결과에 반영하였다.

넷째, 질적 연구에서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 전공자, 현장실무자, 레질리언스 연구자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논문을 작성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1)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연구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³⁾를 근거로 질문하기와 비교하기의 절차를 통해 분석한 결과, 총 393개의 개념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45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되었다(부록 참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3)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결과분석 부분의 각 참여자별 진술을 ①~⑧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 과정의 인과적 조건은 비교적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는 고위험의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시작된다. 장애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더욱 당황하게 되며, 신체적으로 죽을 듯 너무 아파서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하면서도, 언젠가 치료될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갖는다. 초기의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고통이 치료된 후에는 장애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즉, 죽고 싶은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부인하여 마음 안으로 숨어들어가는 경험을 하였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퇴원 후에도 집에만 있고, 지나친 과보호로 점점 무기력해지고, 장애를 수용하기 어려워 내가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세상과 장벽을 쌓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gender), 장애획득시기, 중도장애여부 등에 따라 레질리언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맥락적 조건 속에서 장애인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중심현상은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싶은 내적 동기부여를 통해 좋은 쪽을 보기로 선택하며, 현재의 상태(장애)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하는 긍정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중심현상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중재조건으로는 내적으로 종교의 영향과 역할 모델링을 통하여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살아야만 한다는 생존본능으로 변화의지를 가속화하며,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적으로는 가족, 친구, 주변사람, 제도의 지원을 통해 혼자서 아님을 깨달음으로서 중심현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노력을 배가하고, 직접 찾아보며,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장애인들은 장애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 즉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장애에 대해 모름’, ‘너무 아파 힘들’, ‘마음 안으로 숨어들’이 인과적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① 장애에 대해 모름

연구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이전에 행동이 활발하고, 밝고 명랑하며, 자립심이 강하고, 불임성이 강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1인이 내성적이었음을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원래 활발한 편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사고 전에는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장애에 대한 기본 정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자신에 대해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장애인..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는, 저도 솔직히 장애인들 그렇게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좋게 보진 않았던 거 같아요(③)

② 너무 아파 힘들

연구참여자들은 사고 직후에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지옥을 오가는 느낌으로 죽을 듯 너무 아파서 힘들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체적 아픔은 장애의 경·중과 상관없이 내가 아픈 게 가장 큰 아픔으로 나의 경한 장애가 중도장애보다 더 크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아파서 힘들 때는 장애와 관련된 심리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장애인들,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고통은 있겠지만, 제가 아픈 게 제일 아프잖아요. 심하게 이야기해서 절단.. 저도 처음에 절단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리를 절단하신 분들.. 뭐 그래도 그거보다 제가 더 아픈 거예요. 본성이 내 손가락이 아픈 것이 남 손가락 열개 아픈 것보다 눈으로 보지만서도, 제가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①)

③ 마음 안으로 숨어듦

연구참여자들은 일단 신체적 아픔에 대한 재활치료가 끝나고 나면, 심리·정서적으로 큰 파동을 겪음을 보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포기하며, 너무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분노하며 억울함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은 지옥을 갔다 온 기분으로 표현되기도 하였고, 신께 화를 내거나 밤에 혼자 울고, 비참하며, 파도처럼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살아있음을 원망하고 자살생각을 하며, 죽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임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1인은 전신마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도하려고 했음을 보고하였다. 차마 생각은 있으나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거울을 보지 않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등 나를 부인하는 경험을 통해 ‘마음 안으로 숨어듦’의 특성이 나타났다.

그냥. 막막하죠. 어떡해 하나. 앞으로 나 이제 어떡해 하나. 이걸 진짜 솔직히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 거의 체념하게 되는 거 같은데. 그냥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도 들고. 상대방 욱도 하게 되고, 후회도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괜히 막 화도 나고.(③)

아무리 화를 내봐야 소용도 없구나 해서 그 때부터 생각한 게 죽으려고 생각했죠. 죽자(⑤)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 즉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무기력해짐’, ‘스스로 장벽을 쌓음’, ‘사회적 장벽이 있음’, ‘장애·젠더 특성이 영향을 줌’이 맥락적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① 무기력해짐

연구참여자들은 퇴원 이후 세상과 단절된 채 한동안 집에만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병이 되거나 무기력에 적응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집 밖으로 나가는 경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으로 인해 고마우면서도 부담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과보호 과정에서 점차 무기력을 경험 한다.

오히려 저런 게 있으셨죠. 이렇게, 니가 이런 게 불편하니깐.. 이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부분이 더 많았죠. 오히려 그건 저한테 더 안 좋은 거였죠.(④)

② 스스로 장벽을 쌓음

연구참여자들은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막막하고, 내가 이제 장애인 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나를 감추고 싶고, 이전의 내가 아닌 듯한 낯선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인정하려고 노력하지만 불쑥불쑥 다시 여러 감정들이 떠오르고, 서럽고 불편하고 장애라는 말을 낯설어하며 장애인정이 어려워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1년 정도 그게 이렇게 막 이 영화같은데 보면은 파도 치듯이 파도가 이렇게 막 집어 삼키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오는데 파도처럼 이렇게 막 커져서 가슴으로 확 밀려들어와요.그 때가 언제냐면은 1년 정도는 안힘는데 1년쯤 더 지나서 어느 순간에 자기 뜻대로 몸이 말을 듣지 않을때 그럴때. 아마 중도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할 꺼예요(중략) 지금도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난 장애인이 아닌줄 알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장애인이지 나는 장애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았어요.(⑥)

③ 사회적 장벽이 있음

장애인들은 어렵게 사회에 나가더라도, 취업, 사람들의 편견, 계단 등 사회에서 막힘의 경험을 하며, 여러 문제들이 사방에서 침투해서 절망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정 받는 느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상처받고, 극복했다고 생각할 때조차 가끔은 사람들 시선에 움찔하며 부담스러움과 사회적 장벽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유교문화가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분법으로 계층화함을 제시하였고, 그래서 장애인은 극단적으로 중간계층은 없고 성공과 실패의 이분적인 삶만 조명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입은 옷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므로, 옷을 비장애인보다 잘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아직도 외출만 하면 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구조가 기차라던가 지하철에 계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계단만 쳐다보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무섭거든요. 계단 공포감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아 그건 정말 끔찍스럽거든요.(중략) 내가 장애인이구나 외출만 하면 막막해요 (①)

④ 장애·젠더 특성이 영향을 줌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의 레질리언스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의 다양한 특성들 예컨대 장애정도, 유형, 장애획득시기, 중도장애여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여성장애인들은 젠더 특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를 갖는 순간부터 여성이라기보다는 장애인으로만 대우받음으로서 여자를 버리고 무성으로 살기로 작정했음을 보고 하였다. 특히 하반신마비의 경우 가장 사적인 대소변처리 등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할 때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우며,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떤 차이가 있다면 중도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학교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해봤었잖아요. 교육도 받았었고, 그런 좀 선천적 장애인과 차이가 있는데(⑤)

담에 집에 와서 생각한 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자를 버려야 되겠다.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⑦)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 혹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장애인 레질리언스의 중심현상은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으로 나타났다.

①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

연구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속에서도 자립하고 싶고, 좋은 쪽을 보기로 선택하며, 운이 좋다고 생각함으로써 긍정의 힘이 스스로 새로운 탄력이 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장애인 레질리언스의 중심 현상은 바로 이 긍정의 힘이 새로운 삶을 향한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그래도 이 정도 장애를 갖게 된 것을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했으며, 참여자 중 전신마비 장애인 중 한명은 자살하지 않고 스스로 제어한 것을 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의 긍정의 말에 내가 달라지며 마음을 열게 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계속 하면서 장애에 무너지고, 나머지 인생은 보너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혼자 스스로 자립을 지향하며, 일을 하려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특히 탄력적인 장애인들은 살아있음에 고마움을 느끼며 좋은 쪽을 보기로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긍정적 성향으로 자신을 바꾸어가며,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제. 장애인이었던 분이 쓰신 건데. 어차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나에겐 인생이 보너스다, 그 말이 내게 강하게 와 닿았어요. 되게 소극적이고 누가 뭐 할라고 그래도 장애인이 된 후로 싫다고 막 이랬다가 바뀐게 아, 나는 진짜 어차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인생을 굳이 이렇게 암울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웃을 수 있는데, (중략) 그니깐. 선택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는. 그니까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되게 슬프고 막 이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니까 그거죠. 물 이만큼 있는데, 반 잔 있는데 누구는 반잔 밖에 없는데 나는 반잔이 나 있네. 이 차이인거 같은데요. 저는 행복을 작은 데서 찾는 거를 자꾸 노력했어요(④)

아 저렇구나 저렇게 변했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작된 게, 내가 그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제가 바뀌게 된거죠(5)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을 조절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는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내적으로 ‘변화의지가 중요함’, ‘내일을 준비함’, ‘삶의 목표가 생김’과 외적으로 ‘혼자가 아님을 깨달음’의 중재적 조건이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변화의지가 중요함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이라는 중심현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본인의 변화의지가 중요함을 한결같이 제시하였다. 특히 긍정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본인의 의지와 마음가짐에 따라 레질리언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부질없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고민해도 소용없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은 본능적인 생존욕구 즉,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동인이 됨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죽을게 아니면 살아야만 한다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고, 이것이 스스로를 직시하게 하여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육체적인 재활치료는 병원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은 병원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진짜예요(중략) 신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인 고통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본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중략) 정신적인 나락을 겪다보면 어느 순간에 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진짜 죽는 것밖에 없구나. 해결책을 스스로 나 스스로 찾아야 겠다(1)

근데 분명히 그 분들도 저랑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사람이 되게 강하다고 믿거든요. 그런 어떤 위기상황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니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요(4)

② 내일을 준비함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장애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자신이 선 위치에서 다양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자격증, 방통대, 석사과정, 대학 편입, 미국으로 유학 등 한결같이 공부를 스스로 선택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빨리 시작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며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단기간에 자격증을 한꺼번에 여러 개 획득하거나 장학금을 받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절실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 혼자 힘으로 자격증을 따서 떳떳하게 취업을 하자. 그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①)

지금 와서 되돌아보서 생각해보면 저는 후회가 참 많이 되요. 시간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더 빨리 다치자마자 바로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내 삶을 개척해나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뭐가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⑧)

③ 삶의 목표가 생김

연구참여자들은 역할모델, 성취감 경험, 종교의 영향 등을 통해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료장애인 혹은 중증장애인을 통해 생각이 변화하고, 지향하는 역할모델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작은 일이나 성취의 경험이 다시 일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종교적 관점으로 장애를 해석하고, 장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고 있었다.

제일 큰 거는 세계관의 변화인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구.. 그리구 장애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⑧)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제가 그 그림도 그리고,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서 얻어진 성취감이 컸던 것 같아요.(중략) 나도 할 수 있구나, 공부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고(⑤)

④ 혼자서 아픔을 깨달음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중재적 조건의 하나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혼자서 아픔을 깨닫고 레질리언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질리언스의 개념 중 보호요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가족들이 똑같이 대해주고, 친구들이 찾아오며, 주위사람들이 찾아주고 믿어주고, 제도적 지원이 레질리언스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됨을 강조하였다. 즉, 다양한 가족원들이 보이지 않게 배려하며 장애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친구들이 찾아와 격려하며, 함께 다니고, 병원의 의사, 사회복지사, 교수, 동료장애인 등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며, 재활공학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들이 우선 제일... 힘이 됐죠. 부모님한테 제일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고(③)

특히 친구들은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이 때 친구들이 똑같이 나를 대해주고, 배려도 대놓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많이 힘이 됐던 거 같아요.(중략)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한테 도움을 주려 한다는 그런 게 되게 크게 와 닿았어요(④)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거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정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목적을 지니는 목표 지향적인 속성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노력 배가하기’, ‘직접 찾아보기’, ‘능동적으로 실행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노력 배가하기

연구참여자들은 도움 요청하기와 계속 시도하기를 통해 비장애 때보다 더욱 노력을 배가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장애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움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을 바꾸게 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혹은 먼저 다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경청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요 스스로를 인정하면 스스로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 안 하면 스스로가 계속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지를 않으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면, 도와줄 사람도 되게 막막하고, 그런데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하고자 했을 시 길도 보이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되더라고요(⑤)

② 직접 찾아보기

연구참여자들은 정보 알아보기, 스스로 찾기, 동료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찾아보기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정보를 수집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찾으며, 동료상담 전략을 통해 레질리언스를 위한 힘을 얻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아버지가 입학하고 1달만에 딱 돌아가시면서 이제 집안이 휘청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그 때, 더 강하게 변했죠. 제가 가장이 됐으니까, 장남이니깐. 그 때, 아, 세상을 더 강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극적인 행태로 삶을, 세상을 살면, 어렵겠다 라고 살면서 일부러 좀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따라다니고 좀 그런 욕심이 많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됐었죠(④)

③ 능동적으로 실행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와 먼저 다가가기를 통해 능동적으로 실행하기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원이 많은 곳으로 오기 위해 가족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얹어서라도 가거나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먼저 다가가 얘기하고, 진실로 대하며 나를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계속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제가 이제 먼저 다가갔죠. 나는 이제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먼저 제가 많이 다가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노력을 좀 하면서 이제 애들하고 친해지면서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④)

무조건 무조건 가야해요 그때부터는 생각을 바꿔먹었죠 일단 무조건 간다 다른 사람한테 얹혀서라

도 어떻게 가더라도 일단 무조건 간다(⑥)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중심현상이 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의 결과는 인지적으로 ‘관점이 달라지며’, 심리·정서적으로 삶의 ‘여유가 생기고’, 행동·관계적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분석되었다.

① 관점이 달라짐

연구참여자들은 레질리언스 결과로서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장애수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장애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장애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 세계관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장애를 겪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게 그런 거죠.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자. 계속 연습하다 보니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중략) 뭐 세계관, 인생관이 좀 바뀌었죠, 그냥. 둥글둥글하게(④)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 사는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 뿐인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닌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삶이 전혀 많이 다르거나 이렇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경험을 할 뿐이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경험을 자기만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다른 경험을 하고 사는 거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다 똑같은 게. 이 세상에서 아픔 없는 사람 없구.. 슬픔 기쁨 누리지 않는 사람 없구.. 그렇게 따지면 똑같지 않나 싶어요(⑥)

② 여유가 생김

연구참여자들은 레질리언스의 결과로 용기가 생기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가 되는 아픈 과정을 통해 어른스러워지고 삶을 관조하며, 겸손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장애를 인정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에 보다 좀 생각도 여유로워졌어요. 그 전에 일할 때는 하루하루 진짜 막 짜증만 나고 진짜 성질만 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여유가 생긴 거 같아요. 몸은 좀 힘들어도(③)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다치고 나니까 인제 그런 질문이 옛날에는 아주 조그마한 질문이지만 화두가 더 커졌다 할까요 인생의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뭔가, 그런게 그 말에 의미가 그 단어의 문장의 의미가 커진 것 같아요. 다치고 나니까 확실히 그런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⑥)

어~ 그냥 마지 못해서의 삶이 아니라 충분히 살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되고 할 게 있었던 거죠(⑦)

③ 적극적으로 참여함

레질리언스 결과로서 장애인들은 성격이 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동료장애인 등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는 등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안정되면 봉사하고 싶고, 남을 돕는데 관심이 생기고, 후배장애인에게 도움을 줘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제시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다시 일어서서 평범한 일상 안으로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장애를 갖고 사는 삶은 불편해요. 불편한 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니까 비장애인으로 살면서, 보지 못할 관점이라던가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만들어주고 좀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을 또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보게 만드는. 근데 단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그걸 극복하면,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못보는 그런 걸 더 많이 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④)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나쁜 것은 아니에요. 힘들지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먼저 장애인이 된 선배 장애인으로서 후배 장애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은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⑤)

2)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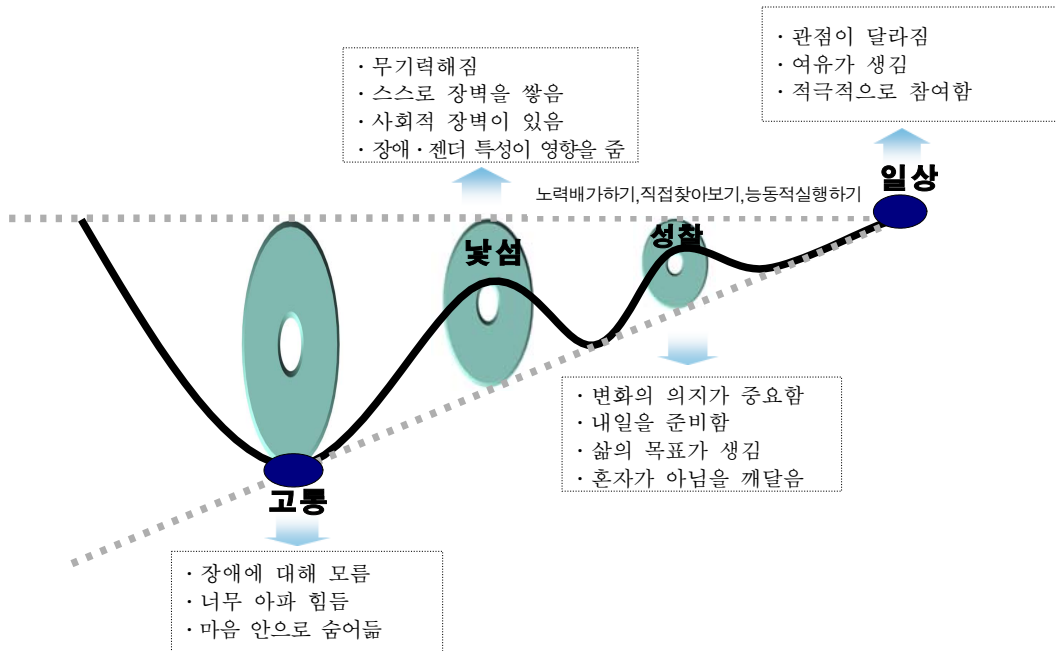
(1) 핵심범주: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나의 삶 선택하기’

선택코딩에 따라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레질리언스의 핵심범주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나의 삶 선택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의 한 순간에 장애인이 된 연구참여자들은 사고 직후에 장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죽을 듯 아픈 신체적 고통에 너무 아파 힘들면서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집으로 퇴원하면서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지옥에 온 기분으로 생을 포기하려는 자살 충동에 직면한다. 가족들은 과보호하고, 집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 집에만 갇혀있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장애를 인정하기 어려워 스스로 장벽을 쌓으며, 사회에서 다양한 장벽에 좌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정도, 장애유형, 생애주기, 성 등 다양한 개인의 특성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그래도 이만한게 다행이라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자립에의 의지로 좋은 쪽을 보기로 선택하는 긍정의 힘으로 다시 세상을 직면해 일어서는 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의 힘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애인들은 스스로 강력한 변화의지를 가지고 ‘배움’의 기제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며, 가족, 친구, 이웃, 사회의 도움으로 혼자서 아픔을 깨닫고 삶의 목표의식을 다시 갖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노력 배가하기, 직접 찾아보기, 능동적으로 실행하기 전략을 활용한다. 그 결과로서 중도장애인들은 인지적으로 장애와 삶,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심리·정서적으로는 다시 살아보자는 용기를 가지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동·관계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취업하며 주변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들에게 장애는 창피한 것이 아닌 삶의 불편함으로, 불쑥불쑥 생애주기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지만 조금 다른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일 뿐이다.

(2) 레질리언스 과정

과정분석이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고통’, ‘낮섬’, ‘성찰’, ‘일상’ 단계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즉, 갑작스러운 장애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심연의 바닥을 치는 고통의 단계에서 낮섬의 단계로 도약하고, 성찰의 단계를 통해 장애를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일상의 단계로 복귀하게 된다. 최초의 바닥을 치는 고통 단계 이후에는 그 깊이까지 절망하지는 않지만, 각 단계마다 새로운 생애주기의 과제에 직면해서 혹은 생의 한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심리적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심리적 파동의 파고는 일상단계에 근접할수록 낮아지며, 좌절했다가 다시 극복하는 시간도 현저히 짧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장애인들이 끝이 없는 나락 혹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여도 레질리언스 과정을 통해 일상으로 다시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단 장애인들이 장애인정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해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생의 과제와 갈등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장애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단계들은 일직선의 단선 관계가 아니라 순환적인 역동구조로 회귀와 진전을 반복할 수 있다.



<그림 2>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

① [1단계 ‘고통’ 단계

이 단계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듯한 신체적 아픔을 겪고, 극심한 심리적 파동에 휘둘리며, 나를 부인하는 단계로 죽고 싶은 충동, 억울함, 막막함, 분노감 등의 정서가 교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장애라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내 이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② [2단계 ‘낮섬’ 단계

이 단계는 스스로 장애를 낮설어하며, 내가 아닌 것 같은 감정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며 당황해하는 단계이다. 아직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을 어려워하며, 사회적 장벽에 좌절하고 장애에 대한 자신과 우리 사회의 편견에 절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맥락적 조건의 스스로 쌓는 장벽과 사회적 장벽들, 장애 특성, 중재조건으로서 본인의 변화의지와 생존욕구, 주변의 지지체계 등에 따라서 ‘낮섬’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노력 배가하기’이다. 장애인들은 도움 요청하기와 계속 시도하기를 통해 낮섬 단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③ [3단계 ‘성찰’ 단계

이 단계는 고통과 낮섬 단계를 거치며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존욕구가 꿈틀거림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도장애인은 스스로 삶의 의지를 갖고 장애에 대한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며, 배움을 시작하고, 열심을 내게 된다. 특히 가족·친구·주위사람·제도적 지원체계에 따라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삶의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 단계에서 주변

장애인의 역할모델이나 종교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며, 작은 성취의 경험을 통하여 일상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힘(empowerment)을 얻게 된다. 이 단계의 주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직접 찾아가기'이다. 장애인들은 정보 알아보기, 혼자 찾아보기, 동료상담하기 등을 통해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한다.

④ [4단계] '일상' 단계

이 단계는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장애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며 평범(일상) 속으로 회귀하는 단계이다.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다. 단지 '장애는 평범하지 않으나 조금 다른 경험을 하며 사는 것 뿐'이라는 관점으로 세상과 장애를 다시 해석하며 삶의 여유를 갖고, 도움을 받는 객체로부터 도움을 주는 주체로의 전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나쁜 아니라 동료장애인, 사회 등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되며,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취업을 하는 등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장애인은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어 자립하고자 하며, 좋은 쪽을 보기로 선택하고 주도적인 삶을 꿈꾸게 된다. 이 단계의 주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능동적으로 실행하기'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와 먼저 다가가기 전략을 통해 레질리언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3)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유형

본 연구를 통해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위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크게 존재성찰형, 진로개척형, 은근노력형, 적극실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

(1) 존재성찰형

이 유형은 장애를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장애인이 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살아야 할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혹은 신으로부터 찾으므로 장애를 실패나 개인의 비극이기 보다는 신이 부여한 소명과 사회적 책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변화의지가 강하며, 주변의 지지체계도 우수한 편으로 장애를 관조하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그러나 적극적으로 삶의 지형을 모색하는 특성이 있다.

(2) 진로개척형

이 유형은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강렬하고, 장애정도가 중하여 집에만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는 개척자적인 사람들이다. 이 유형은 중증장애에도 불구하고 매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고통단계에서 그야말로 죽음도 불사하는 바닥을 치는 고통을 경험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그 깊이가 깊은 만큼 성찰의 단계를 통해 일단 도약하게 되면, 빠르게

4) 레질리언스 유형은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해보고,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이 부분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일상단계로 복귀하며 동료장애인에 대한 모델링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한다.

<표 1>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유형

구분	상위범주	속성	차원	존재 성찰형	진로 개척형	은근 노력형	적극 실행형
인과적 조건	장애에 대해 모름	정도	많음/적음	중간	많음	많음	많음
	너무 아파 힘들	정도	강/약	강	강	강	강
	마음 안으로 숨어둠	정도	강/약	약	강	강	중간
맥락적 조건	무기력해짐	기간	오래/짧게	오래	오래	중간	중간
	스스로 장벽을 쌓음	정도	강/약	약	강	약	약
	사회적 장벽이 있음	정도	강/약	강	강	약	중간
	장애·젠더 특성이 영향을 줌	정도	강/약	강	강	중간	약
중심현상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	정도	강/약	강	강	중간	강
중재적 조건	변화의지가 중요함	정도	큼/적음	중간	큼	약간 큼	큼
	내일을 준비함	정도	많음/적음	중간	많음	많음	많음
	삶의 목표가 생김	정도	많음/적음	많음	많음	약간많음	많음
	혼자가 아님을 깨달음	정도	강/약	강	강	중간	중간
작용/상호작용 전략	노력 배가하기	정도	강/약	강	강	중간	강
	직접 찾아보기	정도	강/약	강	강	강	강
	능동적으로 실행하기	정도	강/약	약	강	중간	강
결과	관점이 달라짐	정도	많음/적음	많음	많음	약간많음	많음
	여유가 생김	정도	많음/적음	많음	많음	약간많음	많음
	적극적으로 참여함	정도	많음/적음	약간많음	매우많음	많음	많음

(3) 은근노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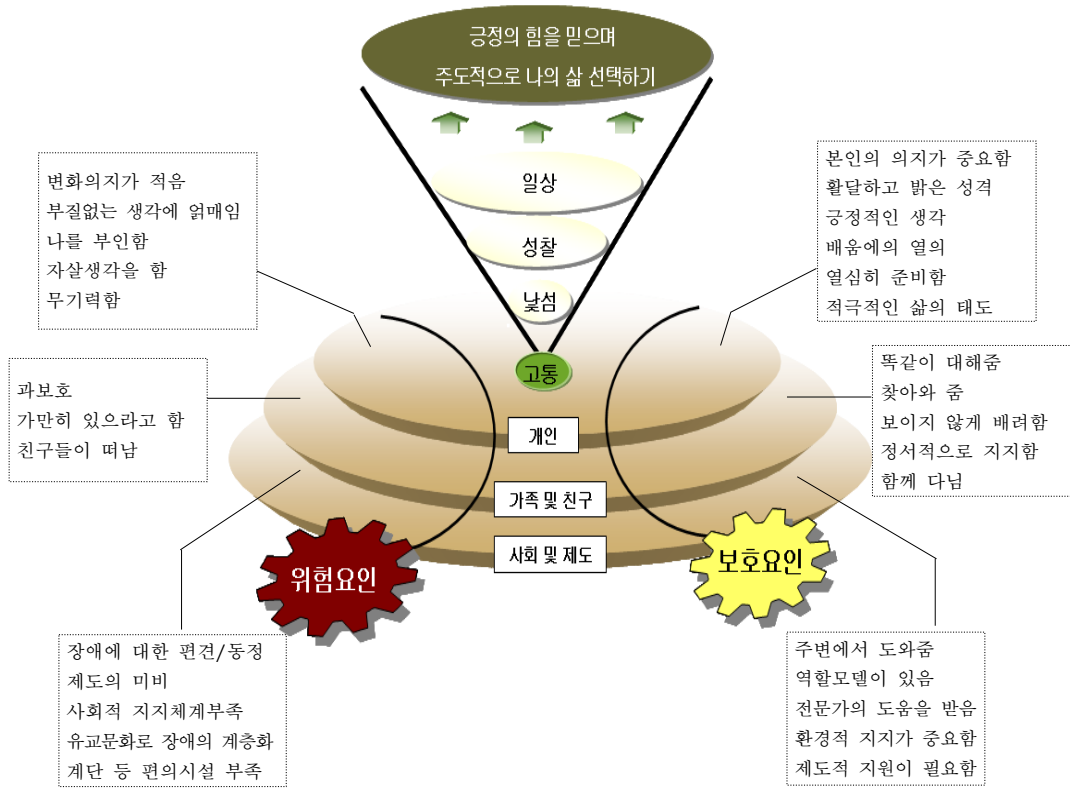
이 유형은 진로개척형의 강렬한 바닥을 치는 고통과 일어서는 역동적 과정보다는 내적으로 조용히 장애에 반응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진로개척형에 비해 장애정도가 경한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척까지는 아니지만 노력 배가하기를 통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자세가 강조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모두 운이 좋아서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은근히 남몰래 노력을 배가하고, 직접 취업을 위해 정보를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하는 유형들이다.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잔잔한 파동을 경험하며, 장애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장애 수용을 어려워하고 경계선에 선자로서 장애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사건으로 감정의 평행이 무너짐을 경험한다. 이 유형은 사고 이전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경향이 강하였으며, 사고 이후 노력 배가하기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향하게 된다.

(4) 적극실행형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통이나 낮은 단계에 머무는 기간이 짧고, 성찰 단계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일단 성찰단계에 오면 여러 대안들을 탐색하고, 찾아 나서고, 요청하는 특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길이라고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저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존재성찰형이 행동보다는 사고하는 기간이 긴 데 반하여 이 유형은 성찰단계이후 바로 행동에 옮기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장벽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적응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나의 삶 선택하기’의 상황모형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에 관한 상황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장애인들은 개인, 가족 및 친구, 사회 및 제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안에서 스스로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나의 삶 선택하기’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통해 보다 성공적인 적응(positive adaptation)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차원의 위험요인으로는 변화의지가 적음, 부질없는 생각에 얽매임, 나를 부인함, 자살생각을 함, 무기력함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및 친구차원으로는 과보호, 가만히 있으라고 함, 친구들이 떠남 등이었다. 사회 및 제도 차원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동정, 제도의 미비,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유교문화로 장애의 계층화, 계단 등 편의시설 부족 등이었다. 한편 이러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레질리언스를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는 보호요인 역시 규명되었다. 개인차원의 보호요인으로는 본인의 의지, 활달하고 밝은 성격, 긍정적인 생각, 배움에의 열의, 열심히 준비함, 적극적인 삶의 태도 등이었다. 가족 및 친구 차원의 보호요인은 똑같이 대해 줌, 찾아와 줌, 보이지 않게 배려함, 정서적으로 지지함, 함께 다님 등이었고, 사회 및 제도 차원으로는 주변에서 도와줌, 역할모델이 있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환경적 지지가 중요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한 레질리언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힘으로써 실천적 함의가 크다.



<그림 3>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상황모형

5. 결론 및 제언

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독특하게 발견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많은 선행연구들은 레질리언스에 관한 위험과 보호요인을 밝힘으로서 이를 독립 혹은 종속변수화하여 변수들간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연구자는 과연 이러한 위험, 보호요인 구조가 질적 접근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에 대한 연구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역시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있음이 지지되었다. 상황모형 구성을 통해 크게 개인, 가족 및 친구, 사회 및 제도 차원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차원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의지, 성격, 긍정적인 기질 등이 제시되었고, 위험요인으로는 자살생각, 무기력 등이 제시되었다. 개인차원의 보호요인이 양적 연구들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된 반면, 위험요인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개인적 차원의 초기개입에 관련

된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재활치료 종료 후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즉시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 집에만 있는 무기력의 상태로부터 집 밖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및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적극적으로 개별 동료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수용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및 친구관련 요인은 양적연구에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진 요인이다. 한가지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호요인으로서 ‘똑같이 대해 줌’과 위협요인으로서 ‘과보호’, ‘가만히 있으라고 함’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과보호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사람으로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었다. 이는 김미옥 외(2003)의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친구들이 찾아오거나 떠남 등이 모든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중요하게 언급되어 이 요인 역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 및 제도요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양적연구에서 언급한 요인들과 동일하였으나, 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보호요인,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 혹은 임상적 개입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자에게 매우 힘들지만 깨우침의 과정이었다. 특히 장애획득이후 초기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이 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과 관련된 함의가 그것이다. 우선, 재활치료가 시작되면서 이미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심리·정서적 개입, 동료상담 등을 통해 치료 후의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초기과정에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심리적 고통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장벽을 쌓아서 사회와 단절되는 기간을 줄이고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수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적 개입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중심현상과 핵심범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레질리언스를 위해서는 ‘고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의 전제가 바로 스스로 자신의 현재와 여기(here and now) 지점을 인정하고 긍정하도록 하는 힘이었다. 또한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나의 삶 선택하기’라는 핵심범주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는 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한 주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생활모델, 인권기반접근 등에서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선택과 자기결정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환경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자는 장애인의 레질리언스에서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 중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인가가 또 다른 연구 질문 중 하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수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제시하면서도 가족, 친구, 주위사람, 제도 등의 지원을 통해 ‘혼자가 아님을 깨달음’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재활의지를 고무시키는 다양한 개입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나, 관련체계의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와 과정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으로의 복귀, 평범한 삶으로의 회귀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개입할 때 큰

목표설정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를 경험하게 하고, 다르지 않음에 기초한 평범 혹은 일상 속에 투영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인이 다른 욕구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은 욕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다름’ 혹은 ‘차이’보다는 ‘같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개입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질리언스의 유형에서는 존재성찰형, 진로개척형, 은근노력형, 적극실행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개입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게 레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주체의 독창성(국내에서든 한번도 시도된 바 없음)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많은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다양한 장애유형, 장애유기별, 성별,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부부 등에도 레질리언스 적용 연구가 확대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선천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본 중도장애인 연구와 비교논의를 한다면 이론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가족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조명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장애와 레질리언스에 관한 토착화된 한국적 지식 체계 구축과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 2003. 『장애인복지실천론』. 서울: 나눔출판.
- 김미옥·김희성·이민영. 2003. “장애청소년의 사춘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0권 1호 167-197.
- 김미옥.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351-381.
- 김혜성. 1997. “회복력 개념개발:혼중모형의 적용”.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6.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성경. 2005. “극복력 개념개발:암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Alriksson-Schmidt, A. I, J. Wallander, and F. Biasini. 2006. Quality of life and resilience in adolescents with a mobility disabilit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1-10.
- DuMont. K. A, C. S. Widom, and S. J. Czaja. 2007. Predictors of resilience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up: The role of individua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hild Abuse & Neglect* 31:255-274.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Kralik, D., A. Loon, and K. Visentin. 2006. Resilience in the chronic illness experience. *Educational Action Research* 14(2): 187-201.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and E. Zigler. 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1):6-22.
- Masten, A. S., L. M. Best, and N. Garmezy.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urphy, L. B. and A. Moriarty. 1976.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From infancy to adolesc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Preece, J. S. 2005. Family resilience and the management of fibromyalgia :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7(4): 559-576.
- Richie, B., A. Ferguson, M. Gomez. 2003. Resilience in survivors of traumatic limb loss.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23(2): 29-41.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 - 331.
- Simeonsson, R. 1995. *Risk, resilience, & prevention: Promoting the well-being of all children*. Baltimore: Paul H. Brookes.
- Strauss, A. and J.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 Strauss, B., F. Fischer, Leppert, J. Fuller, B. Roehrig, C. Schleussner and T. G. Wendt, 2007.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fatigue in cancer patients undergoing radiation therapy (RT). *Journal of Cancer Research & Clinical Oncology*, 133:54-518.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A Study on the Resilience Pro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im, Mi 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resilience pro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To conduct this study,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8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ata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393 concepts on the resilience pro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oncepts were categorized into 45 sub-categories and 18 primary categories. In the paradigm model on the resilience pro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was identified that casual conditions included 'unawareness of disability before being disability', 'extreme pain', 'repressing psychological pain', and the contingent conditions were 'dis-empowerment by staying in home', 'isolation by himself with difficulty in accepting the disability', 'experience of frustration from social barriers with prejudi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lso, it was identified that the resilience process could be dependent on the type and the degree of the disability, the gender, and the length of time being disability. In spite of the casual and contingent conditions, the central way in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acquire resilience was identified as 'enhancement of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control conditions which accelerate or retard central phenomenon were 'the awareness of not being alone through family, friends, neighborhood and the social system' externally and 'finding purpose in life through religion and help from othe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lly. The action/interactional sequences enhanced the efforts, self searching and active acting, and as a resul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find comfort in life, participate in society and change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in society. The core categories of resilience process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a belief in affirmation and choice of life by initiative. In the process analysis, stages developed in the following: 'pain', 'strangeness', 'reflection', 'daily life'. This stage was more continuous and causal than discrete and complete. In this process, the types of resil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ivided into 'existence reflection', 'course development', 'implicit endeavor', and 'active execution'. This study showed the details of the paradigm models, the process and types wit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silience pro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grounded theory as well as theory construction and policy and clinical involvement on the stud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ilience,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논문 접수일 : 08. 02. 26 게재 확정일 : 08. 04. 15]

[부록] 개방코딩 결과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활발함, 욕심이 많았음, 밝고 명랑함, 성격이 원래 긍정적인, 열심히 살려고 했 었음, 자립심이 강함, 불임성이 좋음, 활달함	밝고 적극적임	장애에 대해 모름
장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 장애에 대해 알지 못했음	장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음	
내 아픈게 제일 아픔, 남의 증증장애보다 나의 경한 장애가 더 크게 생각됨,아 플때는 심리적 고통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아픈게 우선임,내 아픈게 가장 큰 아픔임,빨리 퇴원해야 함,진짜 아파야 함,심하게 아파야 함,스스로 고통을 감내 해야 적응함,아픈 것이 어느정도 낮고나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음,지옥을 왔 다갔다 함	죽을 듯 너무 아픔	너무 아파 힘듦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함, 나올거라 기대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함	헛된 희망을 가 짐	
몸보다 마음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 포기함, 너무 혼란스러움, 막막함, 체념함, 분노함, 억울함, 지옥을 갔다 온 기분임, 동정받기 싫음, 하나님께 화냄,밤에 혼자 움, 비참함, 파도처럼 자괴감이 밀려옴, 후회함, 비애감, 두렵고 무서움, 부끄러움, 자기연민에 빠짐, 패배감, 꿈꾸는 기분임, 별 받았다고 생각함, 사람 들이 떠남, 여자친구가 떠남	심리적고통(파 동) 을 겪음	마음 안으로 숨어듦
죽으려고 여러 방법을 써 봄, 죽고 싶음, 자살생각을 함,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음, 살아있음이 원망스러움	죽고 싶음	
거울을 보지 않음, 거울을 방에서 치워버림, 가족들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시설에 들어감, 시설을 찾음, 거울에 생소한 모습이 있음, 신기하고 낯설음, 처 음보는 사람임, 문득 나를 감추고 싶음	나를 부인함	
집에만 있으면 병이 됨, 무기력에 적응되면 나오기 힘들, 턱이 있으면 아예 가 지 않음, 처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어려움,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 엄마가 힘들어하심,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고 간병함	집에만 있음	무기력해 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화남, 가족들이 내 핑계를 대는게 싫음, 엄마가 과보호 함,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으라고 함, 할 수 있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음, 부모님이 과보호함, 고마우면서도 부담됨, 안쓰러워함, 안타까워함	지나치게 도와 주려 함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막막함, 행동에 제약을 받음, 소심해지고 위축됨, 초라하게 느껴짐, 장애가 낯설음	움츠려듦	스스로 장벽을 쌓음
불편함, 서러움, 진짜 장애인이 됨을 실감함, 완전한 인정은 아님, 인정해야하 는데 어려움, 아직 장애라는 말이 낯설음, 장애를 인정한 것은 아님, 불쑥불쑥 다시 떠오름, 남과 비교됨	장애인정어 어려움	
사회에서 막힘, 장애인 사이에도 아웃사이더가 있음, 좌절을 거듭하면 주저앉 게 됨, 아웃사이더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 의사의 부정적인 말을 들음,업주 들이 장애인에게 더 심하게 일을 시킴, 장벽이 밀려와 절망함, 여러문제들이 사방에서 침투함, 계단이 공포스러움	사회에서 좌절 을 경험함	사회적 장벽이 있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음, 장애에 대한 편견을 느낌, 동정함, 여전히 사람들 시선이 움찔해질 때가 있음, 장애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에 상처받음, 시선이 부담됨, 유교문화가 장애를 계층화함, 장애는 성공과 실패 이미지만 있음, 장 애인은 중간계층이 없음, 비장애인보다 옷을 잘 입어야 함, 옷에 신경써, 외출 만 하면 장애인이라고 느낌	장애에 대한 편 견이 있음	

장애유형에 따라 다름, 장애정도가 영향을 줌, 장애획득시기에 따라 다름, 중도와 선천적 장애인은 다름, 중도장애인들은 비장애사회에 사회화되어 있음, 장애획득 시점이 중요함,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요인이 달라짐, 고등학교 때는 가족요인이 큼, 대학때는 사회요인이 큼	장애특성이 영향을 줌	장애·젠더 특성이 영향을 줌
성(gender)이 없어짐, 여자를 버리기로 함, 그냥 무성으로 살기로 함,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함	젠더가 영향을 줌	
운이 좋았음, 운이 좋다고 생각함, 자살하지 않고 제어한 것도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함, 이 정도여서 다행임, 감사함, 운이 좋음, 주의사람들이 잘 대해줌	운이 좋다고 생각함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
긍정적 지지가 중요함, 주변의 긍정적 말에 내가 달라짐, 마음이 열려있어야 함, 자기암시·자기최면이 중요함, 긍정적으로 됨, 나머지 인생은 보너스임, 무더짐, 자기연민에 빠져서는 안됨,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함, 장애 탓을 하지 않음, 살아있음에 고마움, 긍정적 성향으로 바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계속 노력함, 장애를 받아들임,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뀜	좋은 쪽을 보기로 선택함	
자립을 기대함, 일을 하고 싶음, 형제에게 짐이 되기 싫음, 혼자 힘으로 취업 정보를 알아봄, 취업을 준비함, 자격증을 준비함, 완전한 포기는 하지 않음, 기댈대가 없음, 혼자해내야 함, 취업하게 됨, 짐이 되기 싫음,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음	자립하고 싶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함, 본인 의지가 필요함, 본인이 가장 중요함, 본인이 자각해야 함, 개인적 의지가 중요함, 의지가 강함, 긍정을 선택하는 의지가 중요함, 본인의 마음이 중요함, 사람들 관계도 본인의 노력임, 치료를 목숨 걸고 열심히 함	본인의 의지가 중요함	변화의 의지가 중요함
고민해도 소용없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음, 부질없는 생각을 없앴, 생각하지 않으려 함	부질없는 생각을 끊어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함, 생존욕구임, 죽을게 아니면 살아야함, 짐이 될 것을 걱정함, 금전적인 어려움, 생활이 너무 어려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함, 어느순간 깨달음을 얻음, 나를 직시하게 됨, 본능적으로 살고자 함	살아야만 함	
자격증 공부를 시작함, 공부함, 공부하기로 함, 공부하고 싶음, 남은 것은 머리 밖에 없음, 공부를 시작함, 성실하게 공부함, 학원에서 살음, 공부를 하기로 결심함, 배워야 한다고 생각함, 혼자살길을 찾음, 넓은 세상을 봄, 공부밖에 할게 없음	배움(공부)을 시작함	내일을 준비함
절실함, 마지막기회라 생각함, 열심히 함, 필요에 의해 선택했으므로 열심히 함,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음, 빨리 시작하지 않은 것이 후회됨, 자격증을 빨리 획득함, 여러개 자격증을 한꺼번에 따버림	열심히 준비함	
모델링이 있음, 중증장애인을 보면서 생각이 변함, 동료장애인으로 부터 용기를 얻음, 내 경험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음	역할모델이 있음	삶의 목표가 생김
그림과 공부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함, 장학금을 통해 성취감을 얻음, 그림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음,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함	성취감을 경험함	
신앙이 도움이 됨, 목사(전도사)님이 도움, 신앙으로 인해 장애에 대한 생각을 바꿈, 기도함, 신앙의 힘이 큼, 신앙으로 장애를 재조명함, 삶의 목적이 있음, 장애를 신앙적으로 해석함, 신앙의 영향이 큼	종교가 영향을 줌	

부모님께 고마움, 엄마가 큰 힘이 됨, 엄마가 지지함, 똑같이 대해줌, 보이지 않게 배려함, 부모님이 헌신적임, 엄마간호덕분에 살아남, 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해줌, 동생이 도와줌, 가족들이 믿어줌, 조카들이 지지함, 자매들이 헌신적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챙겨줌, 가족들이 장애인취급을 안함	가족들이 힘이 됨	혼자가 아님을 깨달음
친구들이 찾아옴, 교회친구들이 참고 들어줌, 친구들이 격려함, 친구관계가 원만함, 동료장애인이 데리고 시내를 다님, 친구들이 많음, 비장애인친구들이 많음, 교회친구들이 많이 데리고 다님, 친구도움이 큼	친구들이 도와줌	
주위사람들이 도움, 주변에서 배려함, 주위 도움이 중요함, 주변 사람들이 고마움, 주위사람들이 괜찮다고 함, 공단의 도움을 받음, 나를 위해 물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음, 병원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와줌, 주변사람들이 많음, 사람 덕이 많음, 교수님이 먼저 찾아줌,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함,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음, 복지관 선생님이 찾아옴, 좋은 선생님을 만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됨, 사람들에게 감사함	주위사람들이 찾아주고 믿어줌	
여건이 조성됨, 이동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제도의 도움을 받음, 교육권보장이 중요함, 활동보조인에게 스트레스 받음, 개인의지보다 환경적 지지가 중요함, 시선이 무서움, 내가 쳐다봄, 나의 상태를 설명해 줌,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함, 환경의 여건에 따라 다름, 재활공학발달이 도움이 됨	제도적 지원을 받음	노력 배가하기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함, 스스로 인정해야 도움을 청할 수 있음, 도움을 청해야 일어설 수 있음, 자신의 필요를 파악함, 도움을 요청함, 스스로 먼저 도움 요청함, 필요를 이야기함, 도움을 청하기가 낯설음,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음, 요구할 수 있게 됨, 도움에 대한 생각을 바꿈	도움 요청하기	
의도적으로 노력함, 먼저 노력함,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함, 실패를 통해 배움, 다시 시도함, 경청함	계속 시도하기	
직접 정보를 알아봄, 먼저 정보를 수집함, 인터넷으로 찾아봄, 어떻게든 방법을 찾음	정보 알아보기	직접 찾아보기
직접 찾아감, 성당을 활용해 자원봉사자를 구함, 개인적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함, 찾아감, 혼자 찾아봄, 직접 연락해 찾음	스스로 찾기	
동료상담이 중요함, 비장애인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동료상담, 나의 증증장애가 다른 장애인 자립에 도움이 됨,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줌, 자립한 동료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됨, 동료상담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뀜.	동료 상담하기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옴, 무엇인가 계속 하려고 함, 다른 사람에게 얽혀서라도 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됨, 지지체계가 많은 서울에 옴, 적극적으로 행동함,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능동적으로 실행하기
먼저 나서기, 먼저 얘기하기, 진실로 사람들 대하기, 나를 보여주기	먼저 다가가기	관점이 달라짐
평범하게 살고픈, 조금씩 꿈꿈, 장애수용, 장애에 자유로워짐, 시선에 자유로워지는게 장애수용임, 자신감을 얻음, 힘들지만 나쁜 것은 아님,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짐, 장애를 받아들임	자유로워짐 (장애수용)	
장애는 창피한게 아님, 본질이 다르진 않음, 평범하지 않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지만 같음, 불편함, 그럼에도 살만한 가치가 있음, 장애는 사회적 책임임, 장애는 그냥 몸이 불편한 것임	장애에 대한 생각이 바뀜	
세계관이 중요함, 세계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짐, 새로운 생각을 함, 등글게 세계관이 바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김, 시각이 바뀜,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생각함	세계관이 달라짐	

용기가 생김, 저돌적이 됨, 어물쩍 할 수 없음, 진실은 통합, 내가 할 수 있는게 있음, 다시 시작할 마음이 생김	용기가 생김	여유가 생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됨, 생각이 깊어짐,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음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함	
어른스러워짐, 나락을 겪으면 어른스러워짐, 여유가 생김, 여유를 가지려고 함, 겸손해짐,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정함, 서로 배려해야 함	성숙해짐	
말을 많이 하게 됨, 장애후 말이 많아짐, 장애로 인해 내가 바뀜, 장애로 성격이 바뀜, 자포자기할 시간이 없음, 해야 할 일이 많음, 나의 강점을 부각함, 사교적이 됨,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음	성격이 변함	적극적으로 참여함
취업하게 됨, 일자리를 얻음, 자격증을 획득함, 자립생활을 함, 돈을 벌 수 있음,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김, 생애주기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생김, 안정되면 봉사하고픈, 장애인을 돕고 싶음, 남을 돕는데 관심이 생김,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싶음, 후배장애인과 사회에 책임이 있음	주변을 돌아보게 됨	